

2018년 40대 및 50대 노동시장 평가와 특징

임 용 빈

I. 머리말

2018년 2월 이후 고용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과 함께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시장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했고, 15~64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영향으로 제조업, 도소매업 등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했으며 올해에도 경기가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20대 후반 연령층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은 점차 개선되고 있고, 30대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으나 인구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고용률은 증가했다. 따라서 2018년의 고용둔화는 40대와 50대의 노동시장 부진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2018년 중장년층 학력별, 연령별, 산업 및 직종별 등 주요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40대 및 50대의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이들 세대의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II. 2018년 40대 및 50대 노동시장 주요 지표

2018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97천 명 증가하여 고용률은 전년대비 0.1%p 감소한 60.7%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25~29세를 중심으로 고용개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30대의 경우 전년대비 취업자 수가 6만 1천 명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인구가 11만 7천 명 감소한 것을 감안하여 고용률은 0.4%p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각각 20.7%, 24.5%를 차지하여 굵직한 허리를 담당하는 40대와 50대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노동시장의 부진이 이어졌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ybim@kli.re.kr).

2018년 40대는 취업자 수가 6,666천 명으로 전년대비 117천 명 감소하여 전년보다 감소폭이 증가하였고(2017년 50천 명 감소), 50대 취업자 수는 6,346천 명으로 전년대비 44천 명 증가하여 전년보다 증가폭이 둔화되었다(2017년 152천 명 증가). 40대의 고용률이 2017년 대비 0.4%p 감소하여 79.0%를 나타냈고, 50대 고용률은 75.2%로 전년대비 0.1%p 감소했다. 2019년 40대 고용률은 감소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1월 0.7%p 감소, 2월 0.2%p 감소), 50대는 2월 들어 다소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1월 0.3%p 감소, 2월 0.1%p 증가).

〈표 1〉 40대 및 50대 주요 고용지표

(단위 : 천 명, %, %p,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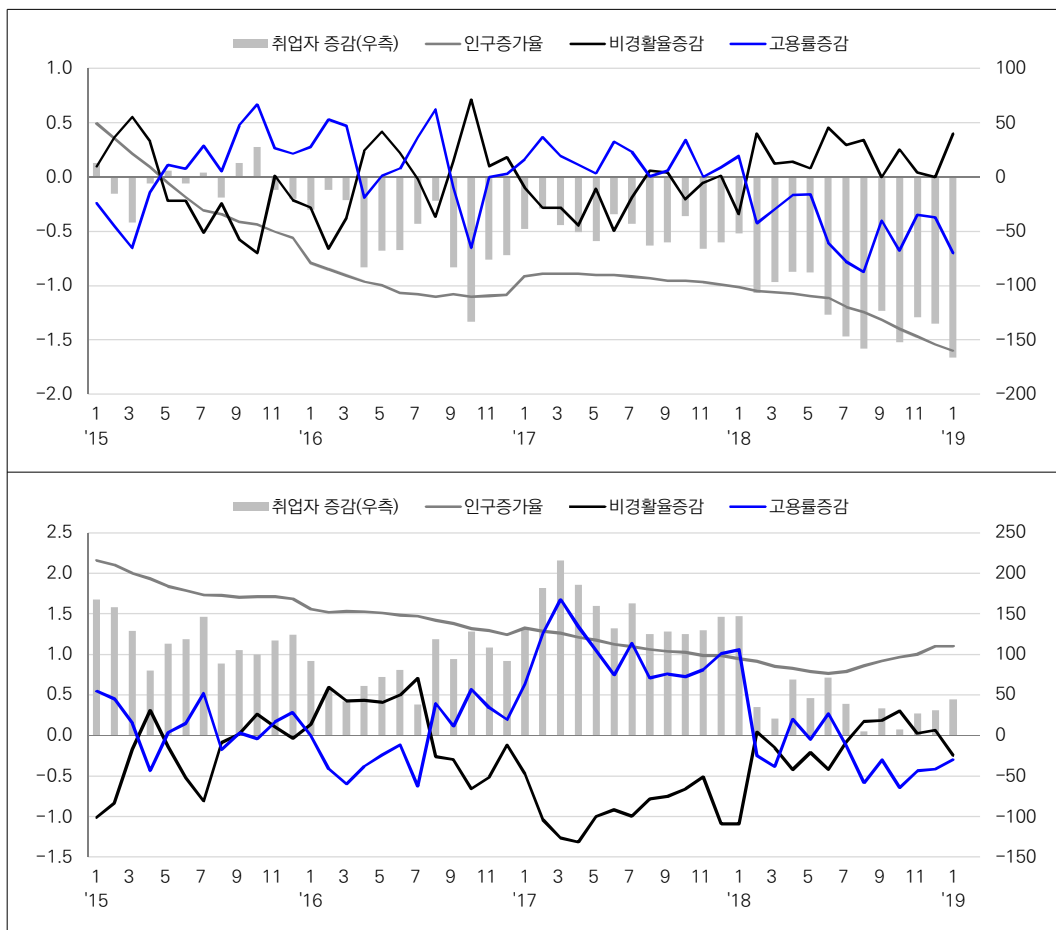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7	2018	2018	2019	
					2월	2월	12월	1월	2월
40대	생산가능인구 (증가수)	8,621 (-88)	8,541 (-80)	8,438 (-104)	8,573 (-78)	8,484 (-89)	8,369 (-131)	8,354 (-137)	8,344 (-140)
	경제활동인구 (증가수)	6,981 (-74)	6,931 (-50)	6,834 (-97)	6,942 (-39)	6,836 (-106)	6,763 (-106)	6,710 (-147)	6,719 (-117)
	취업자 (증가수)	6,832 (-59)	6,783 (-50)	6,666 (-117)	6,765 (-30)	6,658 (-107)	6,611 (-135)	6,539 (-166)	6,531 (-128)
	실업자 (증가수)	149 (-14)	148 (-1)	168 (20)	178 (-10)	178 (1)	152 (29)	172 (19)	189 (11)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수)	1,640 (-14)	1,611 (-30)	1,604 (-7)	1,631 (-39)	1,648 (17)	1,606 (-25)	1,644 (10)	1,625 (-23)
	고용률 (증감)	79.3 (0.2)	79.4 (0.1)	79.0 (-0.4)	78.9 (0.4)	78.5 (-0.4)	79.0 (-0.4)	78.3 (-0.7)	78.3 (-0.2)
	실업률 (증감)	2.1 (-0.2)	2.1 (0.0)	2.5 (0.4)	2.6 (-0.1)	2.6 (0.0)	2.3 (0.5)	2.6 (0.4)	2.8 (0.2)
	고용률 (증감)	79.3 (0.2)	79.4 (0.1)	79.0 (-0.4)	78.9 (0.4)	78.5 (-0.4)	79.0 (-0.4)	78.3 (-0.7)	78.3 (-0.2)
50대	생산가능인구 (증가수)	8,275 (117)	8,368 (94)	8,442 (74)	8,337 (107)	8,412 (75)	8,491 (89)	8,500 (93)	8,512 (100)
	경제활동인구 (증가수)	6,295 (80)	6,442 (147)	6,510 (68)	6,322 (167)	6,375 (53)	6,523 (63)	6,498 (93)	6,507 (131)
	취업자 (증가수)	6,150 (82)	6,302 (152)	6,346 (44)	6,178 (182)	6,213 (35)	6,369 (31)	6,311 (44)	6,301 (88)
	실업자 (증가수)	145 (-2)	140 (-5)	164 (24)	143 (-15)	162 (19)	154 (32)	187 (48)	206 (43)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수)	1,980 (37)	1,927 (-53)	1,933 (6)	2,015 (-60)	2,037 (21)	1,968 (26)	2,003 (1)	2,006 (-31)
	고용률 (증감)	74.3 (-0.1)	75.3 (1.0)	75.2 (-0.1)	74.1 (1.2)	73.9 (-0.2)	75.0 (-0.4)	74.2 (-0.3)	74.0 (0.1)
	실업률 (증감)	2.3 (-0.1)	2.2 (-0.1)	2.5 (0.3)	2.3 (-0.3)	2.5 (0.2)	2.4 (0.5)	2.9 (0.7)	3.2 (0.7)
	고용률 (증감)	74.3 (-0.1)	75.3 (1.0)	75.2 (-0.1)	74.1 (1.2)	73.9 (-0.2)	75.0 (-0.4)	74.2 (-0.3)	74.0 (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5세 단위로 보면 40대 초반(40~44세)의 경우,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취업자가 동반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전년동기 106천 명 감소했고(인구 132천 명 감소, 고용률 0.1%p 감소), 40대 후반(45~49세)은 취업자가 11천 명 감소하면서 고용률이 0.7%p 감소했다. 50대 초반 취업자는 24천 명 감소하여 고용률은 전년대비 0.4%p 감소했다. 50대 후반의 경우 취업자가 68천 명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0.1%p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다(2019년 1월 0.8%p, 2월 0.4%p 감소).

[그림 1] 40대(위), 50대(아래)의 주요 노동지표 추이

(단위 : %, %p, 천 명(우측),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1) 출생아 수의 공식집계(통계청 인구동향조사)가 이루어진 1970년 이후 1981년까지 매년 85만 명 이상의 출생아 수를 기록했는데 예외적으로 2018년 기준 만 나이 40세가 되는 1978년 출생아 수는 80만 명 내외로 적게 나타났다(1978년 출생아 수 75만 명).

Ⅲ. 40대 및 50대 노동시장 부문별 특징

1. 생산직(블루칼라) 종사자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

2018년 40대 고용부진은 일부 산업에서 기저변동이 발생한 영향이 있지만, 무엇보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기존 고용을 이끌어오던 산업에서의 고용이 부진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먼저 2018년 전년대비 27천 명의 감소를 나타낸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제도의 변화로부터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는 업종으로, 2017년 들어 취업자 수가 갑작스럽게 증가(54천 명 증가)했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소매업(68천 명 감소), 운수창고업(25천 명 감소), 사업시설관리, 지원 및 임대업(13천 명 감소) 등 전통 내수서비스 중심으로 40대 취업자가 감소했다.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취업자 비중이 제조업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2018년 기준 14.3%), 전년대비 68천 명 감소하여, 전체 취업자 감소분(117천 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소매업 종사자 중 주로 5인 미만 사업장(39천 명 감소)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주로 편의점이나 소규모 마트에서의 고용이 부진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2017년 40대 취업자 수가 대폭 감소(51천 명)한 후 2018년 3월까지 조금씩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나(1분기 16천 명 증가),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과 의복섬유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부진으로 4월 이후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2분기 16천 명, 3분기 30천 명, 4분기 57천 명 감소). 대부분의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정보통신업(31천 명), 보건복지서비스업(22천 명)에서는 취업자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50대는 인구증가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제조업(2017년 36천 명 증가, 2018년 4천 명 증가), 건설업(2017년 37천 명 증가, 2018년 13천 명 증가)에서의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제조업에서는 상용직의 취업자는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으나(2017년 31천 명, 2018년 32천 명 증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이 감소한 것이 제조업 고용둔화의 원인이 되었다(2017년 14천 명 증가, 2018년 18천 명 감소).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전년대비 12천 명 감소했는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이 감소한 만큼(8천 명 감소) 고용원 없는 자영업이 7천 명 증가했고, 일용직 위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16천 명 감소). 운수 및 창고업도 취업자가 10천 명 감소했는데 주로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이 포함되어 있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를 중심으로 감소했고(14천 명 감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2천 명 감소)가 주로 감소했다

〈표 2〉 40대 및 50대 산업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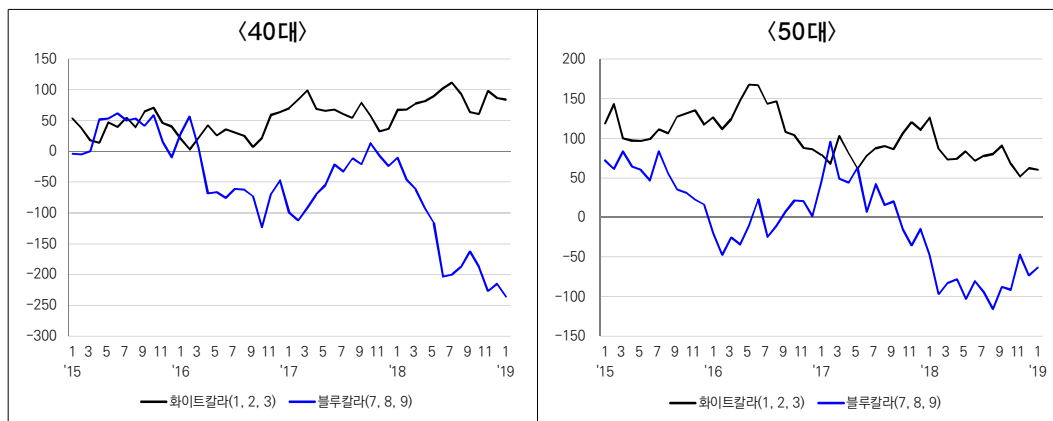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40대				50대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전 체	6,783	(-50)	6,666	(-117)	6,302	(152)	6,346	(44)
[A] 농림어업	112	(-7)	105	(-7)	282	(-7)	280	(-2)
[C] 제조업	1,294	(-51)	1,270	(-24)	1,083	(36)	1,087	(4)
[F] 건설업	595	(25)	607	(12)	680	(37)	693	(13)
[G] 도매 및 소매업	1,022	(7)	954	(-68)	865	(32)	897	(32)
[H] 운수 및 창고업	350	(-30)	326	(-25)	451	(4)	441	(-10)
[I] 숙박 및 음식점업	449	(-34)	441	(-8)	620	(-1)	608	(-12)
[J] 정보통신업	218	(-5)	249	(31)	84	(8)	90	(5)
[K] 금융 및 보험업	247	(-28)	253	(6)	171	(17)	182	(11)
[L] 부동산업	132	(7)	118	(-14)	166	(24)	157	(-9)
[M] 전문과학기술서비스	300	(-10)	292	(-8)	141	(15)	157	(16)
[N]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	269	(-0)	256	(-13)	303	(-11)	305	(1)
[O] 공공행정	288	(-5)	267	(-21)	260	(0)	256	(-4)
[P] 교육 서비스업	614	(54)	588	(-27)	363	(10)	375	(11)
[Q] 보건 및 복지 서비스업	441	(14)	463	(22)	348	(8)	359	(11)
[R] 예술, 스포츠, 여가	85	(18)	95	(9)	79	(-1)	76	(-3)
[S] 협회, 단체, 수리	299	(-1)	313	(14)	315	(-17)	304	(-12)
기타	67	(-5)	70	(3)	89	(-3)	79	(-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40대 및 50대 사무직(화이트칼라), 생산직(블루칼라) 취업자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주 : 화이트칼라는 7차 직업분류에서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종사자를 의미.
블루칼라는 7차 직업분류에서 7. 기능원,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를 의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40대와 50대 모두 직종별로 취업자 증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의 화이트칼라 계열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의 블루칼라 계열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다(그림 2 참조). 40대는 2017년 후반기 이후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취업자 증감의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으나 50대는 2018년 중순부터 취업자 증감의 차이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판매직 종사자(40대 48천 명 감소, 50대 22천 명 증가)는 도소매업 종사자의 변화에 따라 증감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증감이 취업자 증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 변화의 효과를 제거한 상태에서 순수한 고용변화를 파악하였다. 산업 및 직종별 취업자를 해당연도 생산가능인구수로 나눈 것을 2017년도와 비교함으로써, 40대 및 50대의 고용률 변화를 산업별, 직종별로 구분할 수 있다(표 3 및 표 4 참조). 40대의 고용률은 전년대비 0.42%p 감소했는데, 직종별로 전문가(+0.71%p), 사무직(+0.4%p), 관리자(+0.3%p)의 순으로 고용률 증가에 영향을 주었으나 기능원(-0.65%p), 판매직(-0.45%p), 단순노무(-0.37%p)의 순서대로 감소했으며, 제조업 내에서 고용률 증가에 영향을 준 것은 전문가 직종(+0.35%p)이지만 반대로 기능직에서는 0.50%p 감소하였다. 또한 도소매업종은 판매직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0.34%p).

〈표 3〉 산업 및 직종별 40대 고용률 변화에 미친 영향(2018년)

(단위 : %p, 전년대비)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림축연	기능원	기계조작	단순노무	전 체
농림어업	0.00	0.00	0.00	0.00	-0.01	-0.04	0.00	0.00	-0.02	-0.07
제조업	0.08	0.35	0.07	0.00	0.03	0.00	-0.50	-0.01	-0.12	-0.10
건설업	0.07	-0.01	0.17	0.01	0.04	0.00	-0.06	-0.08	0.09	0.23
도소매업	0.05	-0.14	-0.08	-0.02	-0.34	0.00	0.04	0.02	-0.20	-0.66
운수창고	0.00	0.02	-0.08	0.01	0.02	0.00	-0.03	-0.22	0.03	-0.24
숙박음식	-0.03	-0.01	-0.03	-0.02	0.05	0.00	0.03	-0.01	-0.02	-0.03
정보통신	0.03	0.19	0.24	0.00	-0.02	0.00	-0.03	0.00	-0.03	0.40
금융보험	0.05	0.12	0.08	0.00	-0.12	0.00	-0.01	0.00	0.01	0.11
부동산	0.02	-0.10	-0.07	0.00	-0.02	0.00	0.00	-0.02	0.05	-0.15
전문과학기술	0.01	0.06	-0.09	-0.01	-0.02	0.00	-0.02	0.03	-0.01	-0.05
사업서비스	0.00	-0.01	0.15	-0.03	-0.05	-0.03	-0.10	0.03	-0.07	-0.12
공공행정	-0.01	0.01	-0.09	-0.09	0.00	0.00	0.00	-0.03	0.00	-0.20
교육서비스	0.02	0.00	-0.09	-0.07	0.00	0.00	-0.01	0.00	-0.07	-0.23
보건복지	0.03	0.07	0.12	0.14	0.00	0.00	0.01	0.04	-0.09	0.32
예술여가	0.00	0.07	-0.01	0.06	0.01	0.00	-0.01	-0.01	0.02	0.12
협회개인서비스	0.00	0.05	0.11	0.07	-0.02	0.00	0.02	-0.04	0.01	0.21
전 체	0.30	0.71	0.40	0.04	-0.45	-0.06	-0.65	-0.35	-0.37	-0.42

주 : [(현재 산업/직종 취업자 ÷ 현재 인구수) × 100] - [(전년도 산업/직종 취업자 ÷ 전년도 인구수) ×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50대도 산업별로 숙박음식점(-0.20%p), 협회, 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0.17%p), 운수창고업(-0.16%p)이 고용률이 감소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반면, 도소매업은 사무직과 판매직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40대와 마찬가지로 사무직(0.47%p), 관리직(0.26%p)이 고용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기여하였으나 블루칼라 종사자(기능원 -0.34%p, 기계조작 -0.64%p, 단순노무직 -0.30%p)를 중심으로 고용률 감소에 기여했다. 또한 제조업은 사무직이 고용률 증가에 기여하고, 기계조작, 기능원을 중심으로 고용률 감소에 기여하는 등 직종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표 4〉 산업 및 직종별 50대 고용률 변화에 미친 영향(2018년)

(단위 : %p, 전년대비)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림축연	기능원	기계조작	단순노무	전체
농림어업	0.00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5	-0.05
제조업	0.09	-0.04	0.19	0.00	0.05	0.00	-0.19	-0.21	0.05	-0.06
건설업	0.05	-0.09	0.21	0.00	0.00	-0.01	-0.07	-0.08	0.06	0.08
도소매업	0.04	0.02	0.10	0.01	0.09	0.00	0.02	0.00	0.01	0.29
운수창고	0.00	0.03	0.02	-0.01	0.01	0.00	0.03	-0.20	-0.05	-0.16
숙박음식	-0.01	-0.02	0.01	0.04	0.01	0.00	-0.01	0.00	-0.23	-0.20
정보통신	-0.01	0.14	-0.02	0.00	-0.04	0.00	-0.02	0.00	-0.02	0.05
금융보험	0.04	-0.03	0.11	0.00	-0.02	0.00	0.00	0.00	0.01	0.11
부동산	0.03	-0.17	0.09	0.00	-0.02	0.00	0.01	-0.04	-0.04	-0.13
전문과학기술	-0.03	0.10	-0.01	0.02	0.03	0.01	0.00	0.02	0.03	0.18
사업서비스	0.04	0.02	0.00	0.01	0.05	0.04	-0.06	-0.09	-0.04	-0.02
공공행정	-0.01	-0.08	-0.09	0.11	0.00	0.00	0.00	0.00	0.00	-0.07
교육서비스	0.05	0.11	-0.03	-0.02	-0.01	0.00	-0.01	-0.02	0.02	0.10
보건복지	-0.01	0.05	-0.04	0.01	0.00	0.00	0.00	0.01	0.07	0.10
예술여가	0.00	0.02	-0.07	-0.03	0.01	0.00	-0.01	-0.01	0.04	-0.04
협회개인서비스	0.00	-0.03	0.01	0.01	0.00	0.00	-0.03	-0.01	-0.12	-0.17
전체	0.26	0.02	0.47	0.15	0.17	0.06	-0.34	-0.64	-0.30	-0.14

주 : [(현재 산업/직종 취업자÷현재 인구수)×100]-[(전년도 산업/직종 취업자÷전년도 인구수)×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대졸 이상 고용률 40대 증가, 50대 하락

40대 및 50대의 노동시장은 교육정도에 따라 다른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40대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취업자 및 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40대의 경우, 취업자가 25만 3천 명이 감소했고(중졸 이하 36천 명, 고졸 217천 명 감소),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는 40대 취업자는 13만 6천 명 증가했다(전문대졸 32천 명, 대학

고졸 이상 104천 명). 이러한 현상은 2018년 기준 40대에 해당하는 1969~1979년도 출생자가 대학을 진학했을 시기의 대학진학률이 올라가 대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2) 고용률은 고졸 이하(중졸 이하 0.9%p, 고졸 1.4%p 감소)를 중심으로 감소하고 대졸 이상(0.2%p 증가)의 학력수준을 지닌 40대는 증가하였다. 실업률 역시 교육정도에 따라 학력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50대의 경우는 고졸 이하 학력에서 취업자가 8만 1천 명 감소하고 대졸 이상 취업자는 12만 5천 명 증가했으나, 50대의 교육수준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대졸 이상 교육수준을 가진 50대는 고용률(전문대졸 0.4%p, 대학교졸 이상 1.7%p 감소)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대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가 55천 명 증가했는데, 2018년 기준 60세의 정년퇴직을 앞두고 대졸 이상의 취업자가 이직을 한 후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함으로써 잠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고 주로 가사활동(296천 명, 전년대비 39천 명 증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40대 및 50대 교육수준별 주요 고용지표(2018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이상
40대	생산가능인구	297(-48)	3,705(-212)	1,232(37)	3,204(120)
	경제활동인구	212(-36)	2,959(-204)	1,025(36)	2,638(107)
	취업자	203(-36)	2,874(-217)	999(32)	2,590(104)
	실업자	9(0)	85(13)	26(4)	48(3)
	비경제활동인구	85(-13)	746(-7)	207(0)	566(13)
	고용률	68.5(-0.9)	77.6(-1.4)	81.1(0.2)	80.8(0.2)
	실업률	4.2(0.7)	2.9(0.6)	2.5(0.3)	1.8(0.0)
50대	생산가능인구	1,637(-149)	4,128(20)	568(54)	2,109(149)
	경제활동인구	1,166(-101)	3,188(33)	463(42)	1,693(94)
	취업자	1,134(-102)	3,105(21)	449(41)	1,657(84)
	실업자	32(1)	83(12)	13(2)	35(9)
	비경제활동인구	471(-48)	940(-13)	106(11)	416(55)
	고용률	69.3(0.0)	75.2(0.2)	79.1(-0.4)	78.6(-1.7)
	실업률	2.8(0.3)	2.6(0.3)	2.9(0.1)	2.1(0.5)

주: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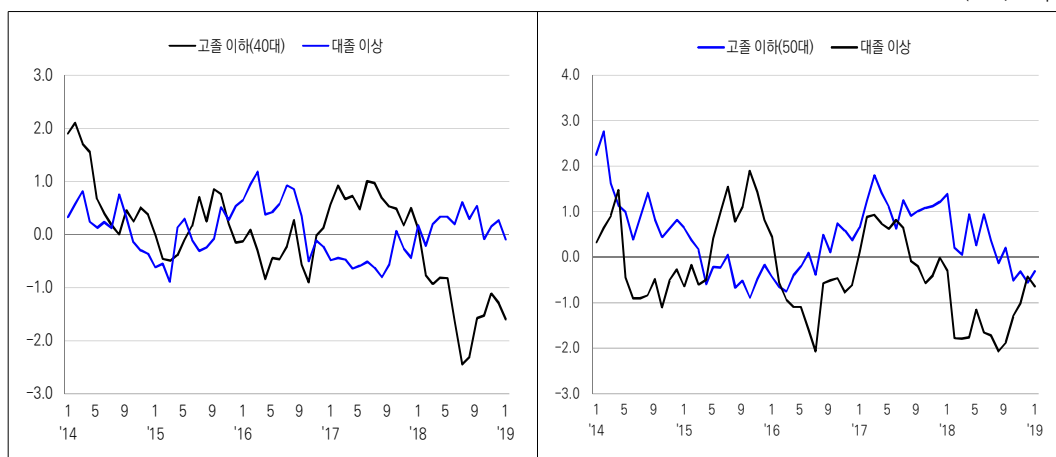
40대의 경우 고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지닌 취업자 감소는 제조업(81천 명 감소, 블루칼라 73천 명 감소), 도소매업(51천 명 감소), 숙박 및 음식점업(25천 명 감소)과 같은 산업에서 뚜렷

2)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 따르면, 1969~1979년 출생자가 대학에 입학했을 당시의 대학진학률(합격자 기준)은 1988년 22%에서 1998년 46.4%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하게 나타나는 반면, 대졸 이상의 취업자는 제조업(57천 명 증가, 화이트칼라 45천 명 증가), 정보통신업(31천 명 증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천 명 증가)과 같은 산업에서 증가하는 등 학력을 기준으로 종사자 산업 분포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50대는 숙박 및 음식점업(35천 명 감소), 운수 및 창고업(22천 명), 도소매업(22천 명)에서 고졸 이하의 취업자가 감소하는 만큼 대졸 이상의 취업자로 대체되고 있다(도소매업 34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 23천 명 증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졸 이상의 고용률이 증가하던 2015년, 2017년(상반기)과 달리 2018년은 부동산업, 공공행정,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업 등에서 대졸 이상 취업자가 감소한 영향으로 고용률이 하락하였다.

[그림 3] 40대 및 50대 교육수준별 고용률 증감 현황

(단위 : %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라 일자리의 선택이 결정되는 기존의 노동시장의 특성상 학력수준, 직종, 종사자 지위 등에 따라 경제상황에 따른 노동시장의 고용둔화에 취약하게 반응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40~59세 고졸 이하 취업자 감소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블루칼라 종사자의 감소(255천 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 남성은 2017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21%에 불과하지만 전년대비 167천 명 감소했고, 여성은 88천 명 감소했다.

블루칼라에서 종사하고 있는 고졸 이하 남성은 전년대비 167천 명 감소했고 여성은 88천 명 감소했다. 그 중 남성은 산업별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에서 취업자의 감소가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자영업으로 종사하는 취업자는 전년대비 58천 명 감소하여 4.5%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블루칼라에서 종사하는 고졸 이하의 여성도 임시일용직 취업자를 중심으로 감소했는데(71천 명 감소), 특히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종사하는 취업자가 줄어

들고 있다(49천 명 감소).

반면, 대졸 이상 교육수준을 지닌 40~59세 취업자는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 증가(180천 명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상용직-여성-서비스업으로 경로를 이어갈수록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취업자 비중도 전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졸 이상 학력의 화이트칼라 상용직 여성은 2017년 기준 40~59세 취업자의 6.6%에 불과했으나 84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취업자의 비중은 7.3%로 증가하고 있다.

〈표 6〉 40~59세 취업자의 주요 증감 경로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2017			2018		
	취업자	비중	증감	취업자	비중	증감
전 체	13,085	[100.0]	(103)	13,012	[100.0]	(-73)
취업자 감소 부문						
고졸 이하	7,650	[58.5]	(-123)	7,316	[56.2]	(-334)
↳ 블루칼라(생산직)	4,034	[30.8]	(-67)	3,779	[29.0]	(-255)
↳ 남성	2,778	[21.2]	(-54)	2,611	[20.1]	(-167)
↳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2,140	[16.4]	(-35)	2,028	[15.6]	(-112)
↳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포함)	642	[4.9]	(-12)	584	[4.5]	(-58)
↳ 여성	1,256	[9.6]	(-13)	1,168	[9.0]	(-88)
↳ 임시·일용직	568	[4.3]	(-50)	496	[3.8]	(-71)
↳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334	[2.6]	(-36)	285	[2.2]	(-49)
취업자 증가 부문						
대졸 이상	5,435	[41.5]	(226)	5,696	[43.8]	(261)
↳ 화이트칼라(사무직)	3,576	[27.3]	(118)	3,755	[28.9]	(180)
↳ 상용직	2,720	[20.8]	(88)	2,858	[22.0]	(139)
↳ 여성	863	[6.6]	(62)	947	[7.3]	(84)
↳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업	499	[3.8]	(41)	532	[4.1]	(33)
↳ 제조업, 도소매업	82	[0.6]	(10)	106	[0.8]	(24)

주 : [] 안은 취업자 구성비, () 안은 전년대비 증감을 의미.

블루칼라는 7차 직업분류상 7. 기능원,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를 의미.

화이트칼라는 7차 직업분류상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종사자를 의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 중장년 연령층 여성의 고용률 증가

2018년 40대 및 50대의 고용둔화는 남성에서 두드러지고(40대 67천 명, 50대 7천 명 감소),

여성의 취업자 수는 5,416천 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40대 50천 명 감소, 50대 51천 명 증가). 여성의 고용률은 40대는 2017년 66.0%에서 2018년 65.7%로 0.3%p 감소했고(남성 0.7%p 감소), 50대는 0.6%p 증가했다(남성 0.8%p 감소). 2018년 전체적인 고용둔화 속에서 여성의 고용사정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는 것이 40대 및 50대에게도 적용된다.

〈표 7〉 40~59세 연령층 여성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2017	2018			2017	2018
주요 산업	제조업	29(-44)	-20(1)	직종	관리직종사자	6(-29)	11(37)
	건설업	16(47)	20(5)		전문직종사자	79(12)	32(19)
	도소매업	12(27)	-25(-12)		사무직종사자	28(59)	66(-3)
	운수·창고업	-8(-18)	-1(-33)		서비스직종사자	-33(7)	-4(19)
	숙박·음식점업	-39(4)	-22(3)		판매직종사자	0(1)	-35(9)
	정보통신업	-1(5)	12(24)		기능직종사자	-6(2)	-12(-74)
	금융·보험업	-6(-5)	12(6)		장치, 기계종사자	21(-29)	-11(-74)
	부동산업	10(21)	-10(-14)	단순노무종사자	-28(22)	-48(-7)	
	전문·과학·기술	8(-3)	5(4)	종사상 지위	상용직	128(74)	165(7)
	사업관리·임대	-17(6)	-7(-5)		임시직	-68(-32)	-116(-11)
	공공행정	4(-8)	-3(-22)		일용직	-25(8)	-26(-5)
	교육서비스업	44(21)	1(-16)		고용원 있는 자영업	14(1)	6(-3)
	보건·복지업	34(-11)	23(10)		고용원 없는 자영업	33(-8)	-15(-59)
	예술·여가서비스	3(15)	13(-7)	무급가족종사자	-26(4)	-13(-4)	
	협회·개인서비스	-18(-0)	12(-10)	40~59세 전체		56(47)	1(-74)

주 : () 안은 전년대비 남성취업자 증감을 의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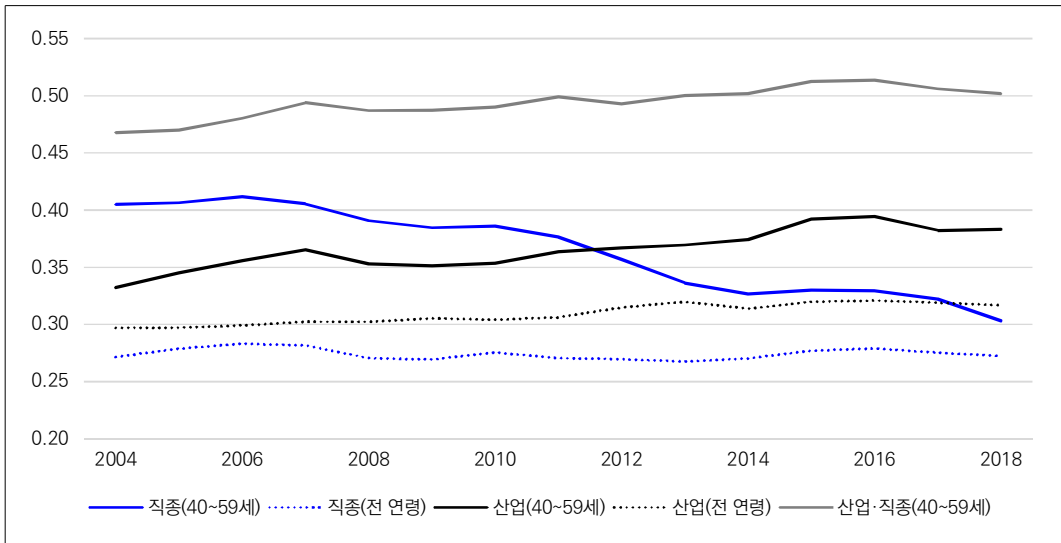
산업별로 남성의 취업자 감소는 주로 운수창고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조금씩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여성은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고용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으나 보건복지서비스업, 건설업 등의 업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직종별로 남성은 기능직, 장치조작 등 숙련을 요구하는 생산직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관리직으로 종사하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여성은 단순노무종사자를 중심으로 감소했으나 화이트칼라 종사자는 증가했다. 무엇보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종사상 지위별로 여성은 상용직이 16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에 14만 명 감소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중심으로 고용개선이 이루어진 반면, 남성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에서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남녀 간 분리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Duncan 지수³⁾를 통해 일자리의 분리, 경합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그림 4 참조), Duncan 지수가 높아질수록 남녀 간 분리현상이 나타나고 낮아질수록 경합상태를 의미한다. 먼저, 직업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분리지수가 높았으나, 점차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이 40대 및 50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과거 출산 및 육아 이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한 여성은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과 같은 직종에서 종사해 왔는데, 특히 제조업과 같이 남성이 주로 속해 있는 업종 내에서 단순보조 업무를 맡거나 판매 및 서비스 관련 직무를 맡아오는 등 직종으로서의 분리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취업자 중에서 전문직, 사무직 등 기존에 남성이 차지하고 있던 직종으로의 진입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분리지수가 낮아지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반대로 산업별 노동시장의 분절 현상은 활발해지고 있다. 여성은 제조업에서의 종사 비중이 낮아지고(2013년 14.9%, 2018년 13.3%), 교육서비스(2013년 10.1%, 2018년 12.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2013년 10.0%, 2018년 12.9%), 금융 및 보험업(3.9%→4.3%)에서는 비중이 증가하지만, 반대로 남성은 제조업에서의 종사비중이 증가하고(2013년 20.0%, 2018년 21.5%), 서비

[그림 4] 직종 및 산업별 Duncan 지수

(단위 : %)



주: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9차 산업분류, 6차 직업분류를 적용하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10차 산업분류, 7차 직업분류를 적용하고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 \text{ Duncan Index} : \sum_{n=1}^N \left(\left| \frac{\text{남성 취업자}_i}{\text{남성 취업자}} - \frac{\text{여성 취업자}_i}{\text{여성 취업자}} \right| \right), n = 1, \dots,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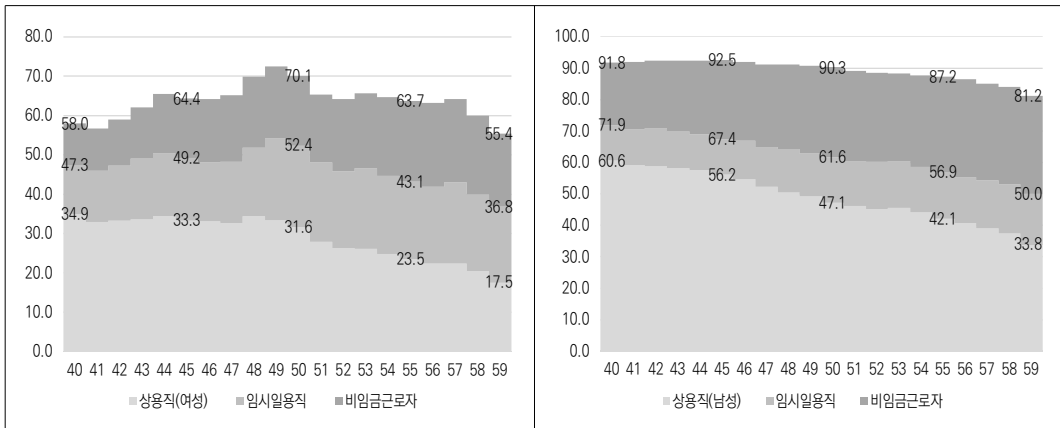
여기서 i는 산업 혹은 직종이 될 수 있다.

스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7%→1.6%, 금융 및 보험업 2.9%→2.6%) 하면서 산업별 분리지수는 전체 연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과 직종을 모두 고려했을 때, 산업 간 분리현상이 직종 간 경합현상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노동시장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1세 단위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생산가능인구수로 나누어 전체 고용률 가운데 종사지위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5 참조), 여성은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후 복귀하여 50세를 전후로 고용률이 높아지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시장에 복귀하여 35%를 차지하던 여성 상용직 취업자의 비중은 50세 이후 급격하게 낮아져 59세에 들어 절반(17.5%)으로 낮아질 정도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용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시일용직과 비임금근로자 셋의 비중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남성은 고용률이 높은 40대 초반(40~44세) 연령대 이후 점차 상용직 취업자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임시일용직과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비임금근로자가 상용직의 1/3 수준이던 40세와 달리 59세에는 상용직과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서로 비슷해진다.

[그림 5] 연령대(1세)에 따른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2018년)

(단위 : %)



주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및 인구를 각 연령별(1세)로 ±1세를 포함한 평균값을 통해 고용률 계산.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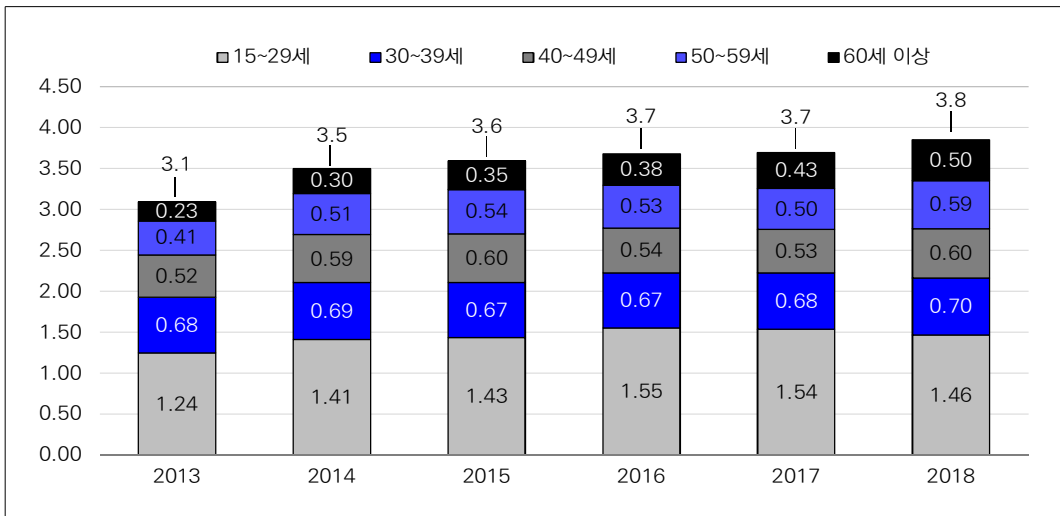
4. 실업률 및 실업자 증가

실업자 및 실업률이 증가한 것도 40대 및 50대 노동시장의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청년층은 대학교 재학 및 진학준비를 하고 고령층은 ‘휴식, 가사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40대와 50대는 취업자의 감소가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실업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40대와 50대의 비경제활동인구참가율은 각각 19.0%, 22.9%로 전체 26.9%보다 낮으며, 2018년 전년대비 비경제활동인구가 104천 명 증가했으나 40대는 7천 명 감소했고 50대는 6천 명 증가했다. 실업자가 감소했던 2017년과 달리 2018년 실업자는 40대는 2017년 대비 20천 명, 50대는 24천 명 증가하였으며 2019년 들어서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1월 40대 19천 명, 50대 48천 명). 2018년 실업률은 40대와 50대 모두 2.5%로 전년대비 각각 0.4%p, 0.3%p 증가했다. 연령대별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누어 전체 실업률 중 연령대별 기여율을 보면(그림 6 참조), 15~29세 연령층에서는 실업률이 감소하는 데 기여한 것과 달리(15~29세 0.08%p 감소),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실업률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40대 0.07%p, 50대 0.09%p 증가).

[그림 6] 실업률에서 연령대별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실업자는 남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8년 40대 및 50대 남성 실업자가 전년대비 33천 명 증가했는데(40대 17천 명, 50대 16천 명 증가), 같은 연령대 여성 실업자 증가분(40대 4천 명, 50대 8천 명)의 세 배 가까운 수치이다. 2017년 고졸 이하 학력을 지닌 실업자는 전년대비 감소했는데(40대 11천 명, 50대 8천 명 감소), 2018년에는 전년대비 26천 명 증가했다(40대, 50대 모두 13천 명 증가). 실업 이후 구직활동기간별로 살펴보면, 구직활동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실업자가 주로 증가하여(40대 16천 명, 50대 20천 명 증가), 비중이 2017년 67.1%였으나 2018년 68.9%로 3개월 미만 단기간 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했다. 반면, 7개월 이상 장기간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40,50대 실업자는 전년대비 4천 명 증가로 전년(2017년 4천 명 증가)과 비슷한 수준 이고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다(12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4천 명 감소).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종사했던 전직 산업, 직종, 종사상지위, 사업체 규모를 조사하고 있는데, 4) 40대 및 50대의 취업자가 임시직, 일용직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나, 실업자는 전직 상용직(40대 16천 명, 50대 6천 명 증가)과 전직 임시일용직(40대, 4천 명, 50대 16천 명 증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종사했었던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앞서 블루칼라(기능직, 장치기계조작직, 단순노무직)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블루칼라로 종사했던 실업자도 28천 명 증가했다(40대 13천 명, 50대 15천 명 증가). 2019년 1월에 들어서도 전직 건설업(37천 명), 숙박음식점업(11천 명)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블루칼라로 종사했던 실업자도 증가하고 있다(기능직 22천 명, 기계장치조립 9천 명, 단순노무직 6천 명).

〈표 8〉 40~59세 연령층 구분별 실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2017	2018			2017	2018
전 체		287(-6)	331(44)				
성별	남성	167(-5)	200(33)	전직 지위	상용직	80(4)	101(22)
	여성	120(-1)	131(12)		임시일용직	123(-6)	144(21)
					비임금근로자	17(-3)	19(3)
학력	고졸 이하	183(-19)	209(26)	전직 산업	제조업	46(-1)	59(12)
	대졸 이상	104(13)	122(18)		건설업	38(-4)	53(15)
구직 기간	1개월	95(-9)	112(17)	직종	도소매업	30(8)	33(3)
	2~3개월	98(-5)	117(19)		숙박음식점업	22(1)	28(6)
	4~6개월	66(3)	71(5)	화이트칼라	59(1)	69(10)	
	7개월 이상	28(4)	32(4)	블루칼라	113(-5)	141(28)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감을 의미함.

화이트칼라는 7차 직업분류에서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종사자를 의미.

블루칼라는 7차 직업분류에서 7. 기능원,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를 의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실업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직경로는 40대 및 50대가 전체 연령대와 다른 점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공공직업알선기관⁵⁾이나 민간직업알선기관⁶⁾과 같은 구직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

4)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직장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종사했던 전직 산업, 직종, 지위, 사업체 규모를 묻고 있다.

5) 공공직업알선기관은 한국잡월드, 지역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워크넷(Work.go.kr) 등을 포함한다.

6) 민간직업알선기관은 유료직업소개소, 온라인상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을 포함한다.

전체 실업자의 비중은 2016년 기준 42.3%였으나 40대 및 50대의 비중은 각각 31.4%, 31.8%에 불과했으며, 그 외 친척이나 친구를 통해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지인을 통해 구직을 알아보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구직기관을 이용해 도움을 받고 있는 비중은 비교적 높아졌다. 40대는 공공직업알선기관을 통해 구직을 알아보는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2016년 15.9%→2018년 23.3%), 50대는 민간직업알선기관을 통해 구직을 알아보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2016년 15.4%→2018년 24.0%).

〈표 9〉 40대 및 50대 연령층 실업자 구직경로

(단위 : 천 명, %)

	40대			50대			전 연령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공공직업알선기관	24 [15.9]	34 [22.9]	39 [23.3]	24 [16.4]	20 [14.1]	27 [16.6]	241 [23.9]	283 [27.6]	305 [28.4]
민간직업알선기관	23 [15.5]	29 [19.7]	34 [20.0]	22 [15.4]	24 [17.3]	39 [24.0]	185 [18.4]	211 [20.7]	257 [23.9]
대중매체	57 [38.4]	44 [29.8]	49 [29.1]	46 [31.4]	39 [28.2]	41 [25.1]	358 [35.5]	320 [31.3]	309 [28.8]
학교, 학원	1 [0.4]	1 [0.7]	2 [1.0]	0 [0.1]	0 [0.2]	0 [0.1]	20 [1.9]	14 [1.3]	16 [1.5]
친척, 친구	42 [28.6]	39 [26.2]	44 [26.3]	53 [36.4]	54 [39.0]	55 [33.3]	198 [19.6]	188 [18.4]	181 [16.9]
기타	2 [1.3]	1 [0.6]	0 [0.2]	0 [0.3]	2 [1.2]	1 [0.9]	7 [0.7]	7 [0.7]	6 [0.5]
전 체	149	148	168	145	140	164	1,009	1,023	1,073

주 : 경제활동인구조사 항목 중 '주된 구직경로'에 대한 복수 응답 중 첫 번째 응답 기준임.

[] 안은 각 구직경로의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IV. 맺음말

2018년 노동시장은 40대 및 50대에게 있어서 고용이 부진했던 상황이었다. 중장년 세대가 지니고 있는 노동시장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먼저 직종별로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으로 이루어진 화이트칼라 취업자는 대체로 증가했지만, 기능직, 조립 및 기계조작 종사자, 단순노무직과 같이 블루칼라 계열의 취업자가 주로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그리고 교육수준, 직종, 종사상 지위에 따라 노동시장의 변화에 취약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고, 남성과의 직업적 분리가 사라지는 반면 산업별 분리 현상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 모두 상용직이 감소하고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은 2018년에도 변함이 없었다. 실업자는 취업자가 주로 감소했던, 블루칼라, 남성, 고졸 이하 학력에서 증가하고 있고, 주로 3개월 미만의 단기 실업자가 증가했고, 지인을 통해서 구직하려는 성향에서 점차 직업알선기관을 통해 구직하려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40대 및 50대의 고용둔화는 학력, 성별에 따른 인구 및 사회구조적 문제와 함께 최근의 제조업 구조조정과 전통적인 내수서비스 부진 등 경제적으로 부진한 상황과 낙관적이지 않은 경기 전망이 이어지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장년의 실업과 불안정한 소득은 고령층 진입과 동시에 노인빈곤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고용둔화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취약하고, 기술발전으로 인해서 대체될 수 있는 계층을 식별하여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고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를 포함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같은 제도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경기부양을 통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KLI**